1693년 숙종의 개성 행차와 의미*

김 우 진**

1. 서론
2. 厚陵·齊陵으로의 행차
3. 개성에서의 행사와 조치
4. 慰撫를 통한 소통의 정치
5. 결론

1. 서론

1693년(숙종 19) 8월, 숙종이 개성에 행차했다. 이것은 1535년(중종 30) 중종이 행차한 이후 약 150여 년만의 일이었다.[1] 조선 전기에는 태종을 시작으로 중종대까지 사냥이나 齊陵·厚陵의 제사 등을 목적으로 국왕들이 개성을 찾았으나,[2] 조선 후기에는 숙종이 처음이었다. 사실 숙종의 개성 행차 역시 제릉·후릉을 展謁하는 도중에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개성이 주요 목적지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숙종은 개성에 이틀간 머무르면서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였고, 의미 있는 사적들을 다수 남겼다.

---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김우진, 2019『숙종대 수도권 방어정책과 국왕의 대응』, 단국대학교 박사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단국대학교 사학과 박사 졸업.

1) 『中宗實錄』 卷80, 中宗 30年 9月 14日(壬申).

2) 조선 국왕의 개성 행차를 살펴보면, 태종 3차례, 세종 4차례, 세조 2차례, 성종·중종·숙종·영조·고종은 각 1차례이다(김문식, 2010「1740년 국왕 영조의 개성 행차」『조선시대사학보』 52, 134-135면).

기존의 개성과 조선 국왕의 개성 행차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선 개성에 대한 것으로는, 조선이 건국된 후에 수도가 한양으로 천도되는 과정 속에서 개성이 부분적으로 주목을 받거나 도시 공간 측면에서 한양과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3] 또한 개성이 옛 舊都이면서 停擧令 등 정치적 이유와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상업적 도시로 변모해 가는 과정이나 그 위상을 분석하기도 하였다.[4] 나아가 조선 사회의 개성에 대한 차별 인식을 통해 개성과 개성인들의 정체성을 밝힌 연구도 있다.[5]

조선 국왕의 개성 행차에 대한 것으로는 조선 전기 국왕들이 御鄕으로서의 개성을 移御 혹은 巡幸을 시도한 정치적 의도를 분석하거나[6] 개성에 있는 조선 開創者의 사적지를 숙종, 영조 등과 연결시켜서 개성의 정치적 입지를 연구한 논문들이 있다.[7] 그 가운데 숙종이 개성에 남아 있는 태조와 관련한 사적지를 정부 차원에서 환기하고, 재정비하는 사업을 통해 태조와의 인연을 부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는 해석은 주목할 만하다.[8] 이는 숙종이 개성에서 태조의 유적지를 방문했던 점, 제릉이 神懿王后의 능이라는 점, 그가 하사한 敬德宮에 관한 시에서 태조의 등극 周甲을 기리는 등 구체적인 언행이 있기 때문이었다.

---

3) 장지연, 2000「개성과 한양의 도성구성 비교」『서울학연구』15; 고동환, 2010「한국도시사 연구동향: 고려 개경과 조선 한양을 중심으로」『역사학보』207.

4) 박평식, 2000『조선전기 상업사연구』, 지식산업사; 2004「조선전기 개성상인의 상업활동」『조선시대사학보』30; 고동환, 2001「조선시대 개성과 개성상인」『역사비평』54; 2009「조선후기 개성의 도시구조와 상업」『지방사와 지방문화』12; 한희숙, 2011「조선 초기 개성의 위상과 기능」『역사와현실』79.

5) 변광석, 2013「조선시대 개성 출신인의 지역 인식」『역사와 세계』43; 양정필, 2017「조선시대 지역에 대한 차별과 개성인의 정체성」『중앙사론』46; 장지연, 2016「조선 전기 개성과 한성의 관계(1): 점으로 보기」『서울학연구』63.

6) 윤정, 2013「태종 18년 개성 移御와 한양 遷都의 정치사적 의미」『서울학연구』50; 2015「정종대 상왕 태조의 임어와 개성 덕수궁」『서울학연구』58; 김순남, 2017「조선 세조의 지방 巡幸의 정치성」『한국사학보』69.

7) 윤정, 2007「조선후기 개성 潛邸舊基의 표장과 국왕의 인식: 숙종·영조대를 중심으로」『조선시대 문화사』상, 일지사; 한희숙, 2013「조선시대 개성의 穆淸殿과 그 인식」『역사와담론』65; 김문식, 2010 위의 논문.

8) 윤정, 2013『국왕 숙종, 잊혀진 창업주 태조를 되살리다』, 여유당, 127-137면.

다만,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숙종이 '1693년'에 '개성'을 행차했다는 점과 이곳에서 개성 주민을 대상으로 文武 設科와 諭示 등의 행사를 '국왕'이 주도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미부여를 하지 못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숙종대 대표적인 保障處 가운데 하나인 개성의 군사적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면서 당시 청정세와 숙종이 개성에서 주도한 행사를 연결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숙종이 개성을 행차해야 했던 국제적 측면에서의 당위성을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연구 성과를 일부나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厚陵·齊陵으로의 행차

1693년(숙종 19) 8월 1일, 숙종은 후릉과 제릉을 전알할 것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일관에게 서둘러 擇日해 보고하라고 명하였다. 숙종의 행차는 28일로 택정되었다.[9]

숙종에게 후릉과 제릉은 좀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후릉은 定宗의 능으로, 정종은 태종에게 밀려 생전에도 사후에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묘호도 없이 恭靖王으로만 불렸다. 하지만 1681년(숙종 7) 숙종은 공정왕에게 정종이라는 묘호를 올리고 시호도 加上하여 다른 조선 국왕들과의 위계를 맞췄다.[10] 제릉은 태조의 정비인 神懿王后의 능인데, 전해인 1692년이 태조가 조선을 건국한 지 300년이 되는 해였다. 후릉과 제릉은 숙종에게 인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리고 기념비적인 면에 있어서도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후릉과 제릉으로의 능행 준비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도성에서 능소까지의 도로 상태와 곡식의 수확 여부였다. 도성에서 개성까지는 淸使와 사신이 왕래하는 길이라 평소 잘 관리되고 있었다. 문제는 공식적인 통행길이 아닌 개성에서 능소까지의 연결로였다. 숙종은 治道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미리 兼司僕을 파견하였다. 그의 보고에 의하면, '개성에서 豐德까지의 15里는 새로 닦아야

9) 『拜陵謄錄(奎12868)』 卷3, 「癸酉八月初一日 · 陵幸擇日」.

10) 『肅宗實錄』 卷12, 肅宗 7年 12月 7日(丙戌).

하고, 풍덕에서 능소까지의 30里는 도중에 기울었으며, 길가에 있는 곡식은 20일 전후로 수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숙종은 곡식이 없는 길을 먼저 닦되, 곡식이 있는 도로와 통행에 위험한 곳은 수확한 이후 掃除하도록 하였다.

후릉과 제릉으로의 행차에 대한 숙종의 의지는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완고했다. 大司諫 姜世龜는 도성에서 후릉과 제릉까지 200里나 떨어져 있고,[11] 백성들이 기근으로 피폐한 상황에서 농작물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하며 반대하였다. 이에 숙종은 아래와 같은 下敎를 내렸다.

> 일찍이 丁卯年(1687년, 숙종 13) 長陵에 行幸할 때에는 3일안에 결정했음에도 딱히 도로를 미처 修治하지 못한 일이 없었으니, 대개 西路가 다른 길과는 달라 사신의 행차가 끊임없이 이어져 도로가 평탄하기 때문이었다. 松都 이남 지역은 民事를 우려하여 收穫을 한 뒤에 수치하도록 하였다. … 나의 의지가 굳게 결정되어 金石같을 뿐만 아니니, 백 명의 姜世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머리털 한 가닥도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 오늘 강세귀의 이 거조가 나의 마음을 시험해보려는 계산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기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코 이 술책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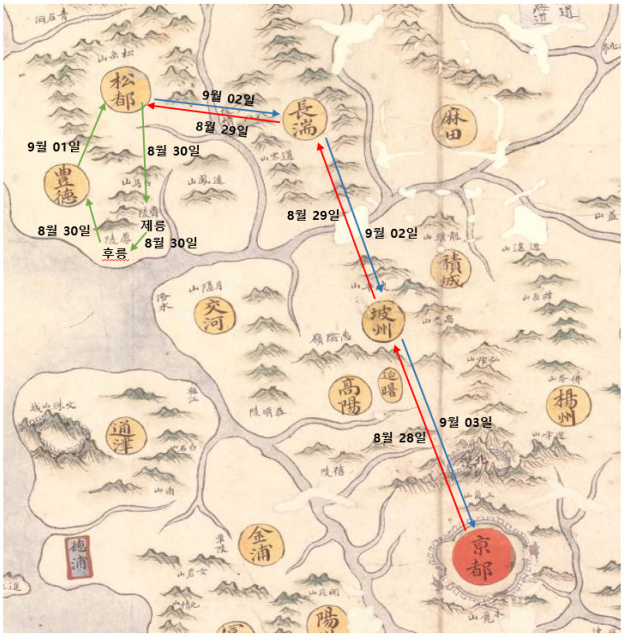
1687년(숙종 13) 10월, 숙종은 2박 3일의 일정으로 長陵을 행차한 일이 있었다. 당시 일정을 살펴보면, 10월 6일에 행차가 결정되고, 10일에 장릉을 출발해서 12일에 환궁하였다.[13] 결정에서 실행까지 단지 3일이 소요되었다. 이것에 비하면 후릉·제릉으로 행차하는 西路는 사신들이 계속 왕래해오던 곳이기에 도로가 이미 평탄하고, 농작물 역시 수확한 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었다. 숙종은 강세귀가 자신의 마음을 떠보려 했다고 여기고, 백 명의 강세귀가 있어도 자신의 결정을 결코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강세귀의 체차를 명령하고

11) 莊陵을 제외하고 厚陵은 도성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왕릉 중 하나였다(이왕무, 2012「조선시대 국왕의 觀光 연구: 陵幸을 중심으로」『역사와실학』48, 131면).

12) 『承政院日記』353册, 肅宗 19年 8月 14日(乙酉) "備忘記 … 曾在丁卯年, 長陵行幸, 定於三日之內, 而道路別無未及修治之事, 蓋西路異於他道, 使行絡續, 道路平坦故也. 自松都以南, 則爲慮民事, 使之收穫後修治矣. … 予志堅定, 不啻金石, 雖有百世龜, 莫能動予一髮. … 今日世龜之此擧, 未必不出於嘗試之計也. 決不可墮其術中."

13) 『承政院日記』325册, 肅宗 13年 10月 6日(辛亥); 325册, 肅宗 13年 10月 10日(乙卯); 325册, 肅宗 13年 10月 11日(丙辰).

도 분이 풀리지 않자 '나를 애처롭게 여겨 용서하라[哀予矜恕]'라고 언급함으로서 다른 의견을 차단하였다. 숙종은 승정원의 거듭된 요청에 '哀予矜恕'의 네 글자는 삭제하였으나, 강세귀의 체차는 끝까지 거절하였다.[14]



〈그림 1〉 숙종의 개성 행차로
(『海東地圖』,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이후의 행차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호행을 담당하는 군문의 분담과 행차 시 주의 사항이 결정되었고,[15] 능소에 展謁하는 절목도 확정되었다.[16] 숙종은 가능한 隨駕하는 인원을 줄이고 배려하였다. 이동 경로가 길었던 데다 수가하는 이들 중에는 아직 채 10살이 안 된 어린 왕자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왕자와 대신, 사관, 승지, 玉堂 관원들에 한해 특별히 말을 지급하되 절대 전례로 삼지 말라는 첨언도 잊지 않았다.[17] 대규모의 인원이 이동하는 만큼 물력도 많이 필요했다. 숙종은 出站하는 읍에서 운반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신 하루거리인 延安을 厚陵站, 白川을 齊陵站, 金川을 赤縣站으로 지정하도록 배려하였다.

1693년 8월 28일, 숙종은 후릉과 제릉으로의 행행을 위해 새벽인 寅時에 창덕궁을 출발하였다. 구체적인 여정은 다음과 같다. 숙종 일행은 28일 한양을 출발

14) 『肅宗實錄』 卷25, 肅宗 19年 8月 14日(乙酉).
15) 『訓局謄錄(K2-3400)』 11冊, 癸酉年(1693, 肅宗 19) 8月.
16) 『拜陵謄錄(奎12868)』 卷3, 「癸酉八月初七日・厚陵陵幸節目」.
17) 『承政院日記』 353冊, 肅宗 19年 8月 3日(甲戌).

하여 淸潭坪·分水院에서 晝停하고 파주에서 유숙한 다음, 29일 長湍·鉢松里를 지나 개성에 도착했다. 30일에 개성을 출발하여 양 능을 전알하고 赤峴에서 주정한 후 풍덕에서 유숙하였다. 이튿날 9월 1일 다시 개성으로 돌아와 하루를 머무르고, 다음날 행차했던 길을 그대로 거슬러 한양으로 환궁하였다. 이는 숙종의 치세 기간 중 가장 긴 총 4박 5일 동안의 외출이었다.[18]

3. 개성에서의 행사와 조치

1693년의 숙종의 개성 행차는 제릉·후릉으로의 능행 속에 이뤄졌다. 하지만 숙종은 제릉·후릉을 전알하는 그 이상의 의미 있는 여러 행사와 조치를 개성에서 시행하였다.

숙종이 개성에서 가장 신경 쓴 행사는 設科였다. 그는 행차가 결정된 후 곧장 개성에 入籍된 '개성 사람'에게만 한정하는 문무과를 시행하도록 명령하였다.[19] 1535년(중종 30) 중종이 개성에서 무과를 시행했던 전례를 따르는 것이었다.[20]

문제는 시험할 장소를 물색하는 일이었다. 당시 후보지로 滿月臺와 南門樓가 거론되었는데, 관건은 보다 많은 지원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만월대는 옛 고려의 궁터로, 공간은 매우 넓으나 좌우와 앞뜰에 백성의 전답이 있었다. 科場을 설시하기 위해 수리한다면 곡식과 목화가 손상될 우려가 있었다. 반면 남문루에는 侍衛하는 장사들이 늘어설 수 있을 정도로 좌우에 넓은 공간이 있다고 하나 확신할 수 없었다. 숙종은 관원을 차출하여 상세히 살피고 다시 품의하도록 하였다.[21]

우여곡절 끝에 숙종은 만월대를 과장으로 결정하였다. 애초에 숙종은 개성을 살피고 온 戶曹佐郎 金昌錫의 제안에 따라, 문과는 태평관, 무과는 남문루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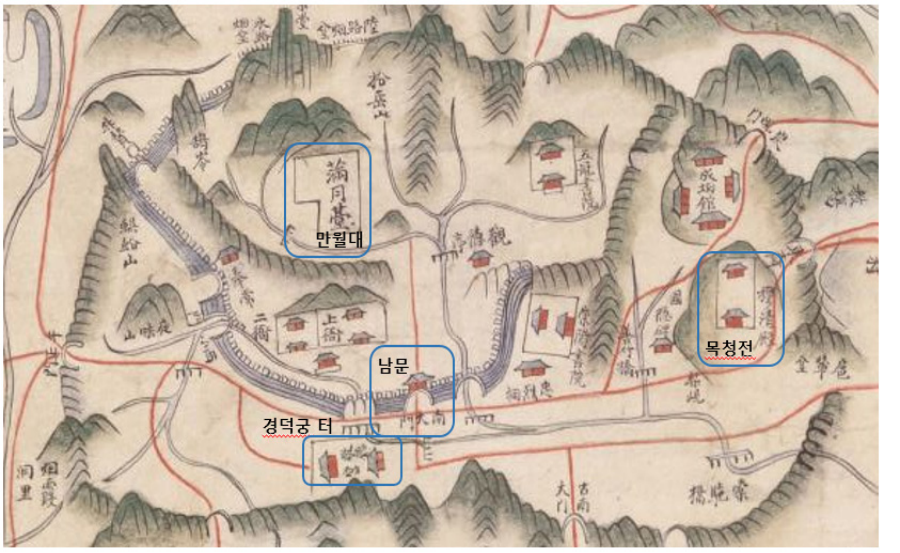
18) 『訓局謄錄(K2-3400)』 11冊, 癸酉年(1693, 肅宗 19) 8月 日; 『拜陵謄錄(奎12868)』 卷3, 「癸酉八月初八日·豊德客舍宿所」; 『承政院日記』 353冊, 肅宗 19年 8月 30日(辛丑).

19) 『拜陵謄錄(奎12868)』 卷3, 「癸酉八月初三日·松都設科」.

20) 『中宗實錄』 卷80, 中宗 30年 9月 16日(甲戌).

21) 『承政院日記』 353冊, 肅宗 19年 8月 6日(丁丑).

科次를 결정하는 일은 남문루의 御前으로 결정하였다.[22] 그런데 막상 남문루에 御座를 배설해보니 생각보다 장소가 협소했다. 어좌 밖에 시위하는 장사와 입시하는 近臣 그리고 무과의 試所까지 함께 병설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牒報에 의하면, 만월대의 臺上에 전답이 없으며, 어좌를 배설하고도 문・무과를 병설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혹시 좁아서 臺下까지 확장해 백성들의 田地를 침범한다 하더라도 그 값을 보상해주면 되는 것이었다. 숙종은 만월대로 확정하고, 臺上에 어좌를 배설하도록 하였다.[23]



〈그림 2〉 숙종이 행차한 개성 지역
(『海東地圖』,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시재 형식은 殿試의 예에 의거해 설행되었다. 문과는 大提學이 庭試의 書題懸板을 직접 쓰게 하였으며, 對讀官과 侍讀官의 望은 대가가 개성에 도착한 후에 들여보내도록 결정하였다.[24] 무과는 擧子의 수가 많아 하루 안에 끝내지 못

22) 『承政院日記』 353冊, 肅宗 19年 8月 10日(辛巳).

23) 시재 당일 문과는 만월대에서, 무과는 남문루에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拜陵謄錄(奎12868)』 卷3, 「癸酉八月十六日・設科滿月臺」; 『承政院日記』 353冊, 肅宗 19年 8月 15日(丙戌); 353冊, 肅宗 19年 8月 23日(甲午); 『肅宗實錄』 卷25, 肅宗 19年 9月 1日(壬寅)].

할 것을 고려하여 사전에 初試를 시행하게 하였다.[25] 또한 모든 入格者들이 放榜에서 복두와 관대 등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춘당대 庭試의 예를 따라 工曹의 濟用監에서 進排하도록 하였다.[26]

숙종은 시재의 규정을 계속 완화하여 가능한 많은 개성의 무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병조에서 제안한 무과의 規矩는 柳葉箭을 5번 쏘아서 3번을 맞추는 것이었다.[27] 그런데 며칠 후 숙종은 2번 맞추는 것으로 변경하였고,[28] 결국은 1번 맞추는 것으로 낮추었다. 또한 시재 종목에 貫革을 추가하고, 이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각 기예마다 선발하도록 하였다.[29]

8월 29일, 파주를 출발해 장단을 거쳐 개성에 이른 숙종은 한시라도 빨리 시재 장소를 직접 보고 싶었다. 그래서 개성 銅峴에 이르자 갑자기 동선을 변경해 滿月臺로 나아가고자 했다. 우의정 閔黯이나 영부사 金德遠 등이 아직 시설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하지만 숙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작업 중인 만월대를 향해 질주하여 시재 장소를 확인하였다.[30]

개성에서의 시재는 숙종이 제릉·후릉을 전알하고 이튿날인 9월 1일에 시행되었다. 당일 내에 모든 시재가 완료되어야 하는 빠듯한 일정이었기 때문에 숙종은 풍덕에서 새벽 4시에 출발하였다.[31] 개성에 도착한 그는 만월대에 나아가 '백성에게 田租의 반을 감하여 내려주는 것에 대한 노래[賜民田租之半頌]'라는 제목으로 문과를 보았다.[32] 그 결과 許溥, 林汝恂, 全與初 등이 선발되었는데,[33] 이후 허부는 西學敎授·銀溪察訪·幽谷察訪 등을 거쳐 開城敎授로, 임여순은 奉常正, 김여초는 開城敎授로 활약하였다.

---

24) 『拜陵謄錄(奎12868)』 卷3, 「癸酉八月二十九日·書題大提學自寫」.
25) 『承政院日記』 353冊, 肅宗 19年 8月 11日(壬午).
26) 『拜陵謄錄(奎12868)』 卷3, 「癸酉八月初八日·松都庭試追節目」.
27) 『承政院日記』 353冊, 肅宗 19年 8月 3日(甲戌).
28) 『承政院日記』 353冊, 肅宗 19年 8月 20日(辛卯); 『備邊司謄錄』 47冊, 肅宗 19年 8月 11日.
29) 『承政院日記』 353冊, 肅宗 19年 8月 23日(甲午).
30) 『肅宗實錄』 卷25, 肅宗 19年 8月 29日(庚子).
31) 『承政院日記』 353冊, 肅宗 19年 8月 30日(辛丑).
32) 『輿地圖書』 내의 『松都誌』 卷1, 「國朝紀事·肅宗」(이하 『松都誌』).
33) 『拜陵謄錄(奎 12868)』 卷3, 「癸酉九月初一日·松都榜目」.

무과는 숙종이 개성에 이른 후에 개장하였다. 애초부터 무과 시재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던 숙종이었다. 그는 능소를 전알하고 돌아온 후에 아직 시재하지 못한 무과 응시자가 있다면 직접 시재하겠다고 언급하곤 하였다.[34] 그런데 막상 개성에서 올린 무과초시 방목에는 入格者가 겨우 45명뿐이었다. 숙종은 이 인원이면 반나절에 試射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자신이 개성으로 돌아온 후에 무과를 개장하여 처음부터 무신들을 살피는 것으로 변경했다.[35] 이 무과 시재에서 張景緯 등 23명이 선발되었다.[36]

다음으로 숙종이 개성에서 신경을 쓴 것은 개성의 父老들을 모아 諭示하는 행사였다. 設科가 능행하기 이전부터 결정된 사항이라면, 이것은 개성에서 즉흥적으로 확정된 것이었다. 8월 29일, 숙종은 아래와 같은 전교를 내렸다.

> 南門樓가 저자[闤闠] 가운데 있어 앞뒤로 훤히 보이니, 曉諭하기에 편하다. 만약 御駕를 돌려 돌아갈 때, 남문루에 殿坐하여 부로들을 불러 모아 각별히 軫恤하고, 民役을 감해 주는 뜻으로 타이른다면, 사체상 매우 편리하고 마땅할 것이니, 이런 뜻으로 분부하노라. 本府의 조세[役]를 감해주는 일에 관해 (9월) 1일 전까지 대신들은 미리 講究하여 稟定하도록 하고, 부로들 역시 일제히 남문루 앞으로 모이게 하여 친히 유시할 수 있도록 하라.[37]

개성에 이르자마자 만월대로 향한 숙종은 개성의 형세를 직접 감상하고 개성부 백성들에게 혜택을 베풀기 위해 대신과 留守 申厚載에게 1일 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고안하도록 명령하였다. 나아가 숙종은 이런 혜택을 개성 백성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싶었다. 마침 남문루가 저자 가운데에 있고 사방을 환히 다 바라볼 수 있어서 유시 장소로 매우 적합했다.

---

34) 『拜陵謄錄(奎 12868)』 卷3, 「癸酉八月初十日・設科於太平館」.

35) 『承政院日記』 353册, 肅宗 19年 8月 23日(甲午) "上曰, … 卽見武科初試榜目, 入格之數, 只是四十五人, 不待半日, 可以畢射, 大駕還到滿月臺後, 武科開場."

36) 『松都誌』 卷1, 「國朝紀事・肅宗」.

37) 『承政院日記』 353册, 肅宗 19年 8月 29日(庚子) "傳曰, 南門樓在於闤闠之中, 前後通望, 便於曉諭. 若於回鑾時, 殿坐南門樓, 聚會父老, 諭以各別軫恤, 蠲減民役之意, 則事甚便當, 以此意分付. 本府蠲役事, 初一日前, 與大臣預爲講究稟定, 父老亦令一齊聚會於南門樓前, 以爲親諭之地."

시재 다음날인 9월 2일, 숙종은 上京하기 앞서 남문루에 殿坐하고 개성의 父老民人들을 대거 모아 하교하였다.

> 故都의 백성은 다른 곳과 비교해 다름이 있으니, 예로부터 조정에서 특별히 軫念을 더하였다. 이번에 마침 園陵을 祗謁하다 행차가 이곳을 지나니 優恤하는 도리가 없을 수 없다. 새로 還上하는 이외에 아직 거두지 않은 옛 환자인 쌀, 콩, 벼를 합하여 1,200여石을 일체 탕감하노라. 또한 들으니, 본부에서 칙사의 支供에 소요되는 물자를 마련하기 위해 전후로 각 衙門에 銀錢 도합 9,000兩, 大米·小米 모두 3,000石, 綿布 30同, 鍮鐵 2,000斤의 빚을 졌다고 한다. 그러나 장차 갚을 때는 民役에서 떠맡아야 하므로 역시 특별히 탕감할 것을 명하니 이것으로 별도로 시혜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노라.[38]

개성은 前朝인 고려의 수도였고, 태조의 잠저가 있는 곳이며, 조선이 한양으로 천도하기 이전까지 수도의 역할을 했고, 천도 후에도 태조·정종·태종이 머물면서 집무를 보던 지역이었다.[39] 그런 만큼 조선 국왕들은 개성을 다른 지역과 달리 인식했고, 그런 관념을 숙종 역시 공유하고 있었다. 마침 후릉·제릉의 전알을 위해 개성에 행차한 숙종은 부로들을 모아 그들의 疾苦를 두루 물었고, 오래된 관아의 빚과 還穀을 일체 탕감해주었다. 이것은 민간에서 고스란히 떠맡아야 할 부담이기 때문이었다. 개성의 부로들은 이 기회를 틈타 숙종에게 束伍 收米, 中江開市, 칙사 응접 등 개성부에서 오로지 감당해야 하는 폐단들을 진달했으며, 풍덕과 장단 등 지역의 일부가 개성부에 소속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40] 부로들의 의견을 경청한 숙종은 상경 후 집무를 시작하면서 '개성 백성들이 제안한 의견 중 변통할 만한 일에 관해서 해당 각사가 검토한 후 품의·처리하라'고 명령했다.[41] 비록 시간이 다소 걸리기는 하였으나 개성 주민들이 가장 고역

38) 『承政院日記』 353冊, 肅宗 19年 9月 1日(壬寅) "下敎曰, 故都之民, 比他有別, 自前朝家, 特加軫念. 今適祗謁園陵, 輦過于此, 不可無優恤之道. 新還上外, 舊未捧還上米太租竝一千二百餘石, 一併蕩減. 且聞本府爲辦勅需, 前後出債於各衙門, 銀錢合九千兩, 大小米竝三千石, 木三十同, 鍮鐵二千斤. 而將來還報, 當責出於民役, 故亦令特爲蕩減, 以示別樣施惠之地."

39) 윤정, 2013 앞의 논문; 2015 앞의 논문.

40) 『肅宗實錄』 卷25, 肅宗 19年 9月 1日(壬寅).

41) 『備邊司謄錄』 47冊, 肅宗 19年 9月 14日.

으로 여겼던 속오 수미는 타파되었고,[42] 인근 지역인 長湍의 松西面을 개성에 획급하는 안건도 계속 논의되었다.[43]

한편 숙종은 개성에 남아 있는 고려와 조선 왕실과 관련된 곳에 행적도 다수 남겼다. 개성부에는 고려 태조와 신혜왕후의 능인 顯陵이 있었는데, 당시 고려 왕실의 후예 5~6인이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잘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숙종은 고려 태조가 三韓을 통일한 공로가 있다는 李著晩의 의견을 인정하고, 전 왕조의 능에 제사지낼 것을 분부하였다.[44] 치제는 숙종이 개성에 돌아온 9월 1일에 시행되었는데, 祭官은 특별히 승지를 差送하고, 제물도 조선 원릉의 제향 의례에 따라 포와 희생을 사용하되 奉常寺에서 진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45]

또한 개성부에는 태조와 태종의 흔적이 남아있는 '경덕궁'과 '목청전'도 있었다. 경덕궁은 태조의 潛邸 때의 옛 터이면서 태종대까지 정사를 보던 곳으로, 「龍飛御天歌」와 『輿地勝覽』에도 등장한다. 그러나 경덕궁은 壬辰倭亂으로 전소한 이후 掌苑署에 소속되어 장기간 백성들의 토지가 되었었다. 비록 1657년(효종 8)에 담장을 두르고,[46] 1669년(현종 10)에 손질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47] 목청전은 태조가 擊毬하며 말 달린 곳으로, 태종이 이를 기념하여 태조의 影幀을 봉안한 후 진전으로 삼았으나, 역시 임진년의 병화로 완전히 소실되었다. 郎原君 李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숙종에게 경덕궁과 목청전의 유래와 현황 등을 아뢰며 기념비적인 행적을 남기길 요청했다. 이에 숙종은 유수에게 이곳을 잘 관리하도록 하고, 대제학 權愈에게 글을 지어 비석을 세우도록 명령하였으며,[48] 개성으로 돌아오는 날 목청전의 옛 터를 둘러보았다.[49] 나아가 숙종은 직접 시문을 지어 태조의 공적을 기렸다. 그는 경덕궁에 대

42) 金友哲, 2009「조선 후기 開城의 지방군 운영의 변화과정: 操鍊과 收米 문제를 중심으로」『한국사연구』147, 277-294면.

43) 김태웅, 1999「조선후기 개성부 재정의 위기와 행정구역 개편」『한국사론』42, 667-669면.

44) 『承政院日記』353册, 肅宗 19年 8月 28日(己亥).

45) 『承政院日記』353册, 肅宗 19年 8月 29日(庚子); 『拜陵謄錄(奎12868)』卷3, 「癸酉八月二十八日・行幸時書院致祭」.

46) 『顯宗實錄』卷16, 顯宗 10年 1月 4日(戊戌).

47) 『松都誌』卷3, 「宮殿・慶德宮」.

48) 윤정, 2007 앞의 논문, 310면.

한 시의 한 구절을 돌에 새겨 목청전의 터에 두도록 하였고,[50] '敬德宮丕啓靈慶之碑(신령한 경사의 기틀을 크게 열어준 경덕궁의 비석)'와 '穆淸殿丕啓靈慶之碑(신령한 경사의 기틀을 크게 열어준 목청전의 비석)'라는 額字를 하사해 각각 비문에 새기게 하였다.[51]

그밖에 숙종은 鄭夢周와 徐敬德을 기리기 위해 각 서원에서 일제히 치제하도록 하였으며,[52] 개성 이외에 능행을 뒷바라지 한 경기지역 백성들을 위해 별도의 혜택을 주도록 명령했다.[53] 또한 어가를 호위한 侍衛將士와 군병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別試才를 실시하기도 하였다.[54] 이처럼 숙종은 총 4박 5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상경하였고, 그가 시행한 개성에서의 다양한 조치는 영조대에 그대로 재현되었다.[55]

4. 慰撫를 통한 소통의 정치

숙종은 제릉과 후릉을 전알하는 도중에 개성을 방문하였고, 5일의 일정에서

49) 『拜陵謄錄(奎12868)』 卷3, 「癸酉八月三十日 · 太祖大王舊基立碑」; 『肅宗實錄』 卷25, 肅宗 19年 9月 1日(壬寅). 하지만 『承政院日記』 英祖 16年 9月 3日條에 '穆淸殿을 두고 癸酉年에 미처 (숙종이) 행행하지 못하신 곳에 오늘 와서 지나간다'는 표현으로 미루어보아 이때 숙종이 방문한 곳은 목청전이 아닌 경덕궁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다(위의 논문, 318면).

50) 숙종은 敬德宮, 南門樓, 滿月臺를 주제로 하여 총 3首의 御製詩를 내렸는데, 첫째는 '去年重遇龍飛歲, 今日欣瞻聖祖宮. 奚但羹墻追慕倍? 緬懷洪烈意無窮.' 둘째는 '繁華氣像漠然衰, 千載宮餘麥秀基. 欲識古今興喪處, 須將伊訓玩心思.' 셋째는 '緩步登臨百尺樓, 我心非是喜觀游. 今辰闤闠咨詢地, 更願覃恩普九州.'로 모두 목판에 새겨 남문루에 걸도록 하였고, 목청전에도 첫 번째 경덕궁에 대한 시를 새겨 두었다[『肅宗實錄』 卷25, 肅宗 19年 9月 8日(己酉)].

51) 한희숙, 2013 「조선시대 개성의 穆淸殿과 그 인식」 『역사와담론』 65, 205-206면.

52) 『拜陵謄錄(奎12868)』 卷3, 「癸酉八月二十八日 · 圃隱華潭書院致祭」; 卷3, 「癸酉八月二十八日 · 行幸時書院致祭」.

53) 『備邊司謄錄』 47冊, 肅宗 19年 9月 14日; 『肅宗實錄』 卷25, 肅宗 19年 8月 29日(庚子).

54) 『承政院日記』 353冊, 肅宗 19年 9月 3日(甲辰).

55) 영조의 개성 행차와 그 의의는 김문식, 2010 앞의 논문 참조.

이틀을 머물면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단연 설과와 유시였다. 적어도 이 행사들은 주변의 諫官이나 종친의 언급에서 비롯된 것과는 다르게 애초부터 숙종의 적극적인 의지에서 발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과와 유시는 모두 개성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국왕의 시혜 조치였다. 그렇다면 숙종이 이러한 행동을 취한 근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당시의 국제적 분위기를 살펴보자.

숙종이 개성을 행차한 1693년(강희 32, 숙종 19)을 전후해 청은 몽골 오이라트 준가르 부족 갈단[噶爾丹]과의 대립을 이어가고 있었다. 康熙帝는 1690년(강희 29, 숙종 16)에 있었던 울란부퉁[烏蘭布通] 전투 이후 갈단과의 재대결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다.[56] 그 파장은 조선에까지 미쳤다. 1691년(강희 30, 숙종 17) 청 칙사들은 조선인의 무단 越境과 청인 살해 사건을 빌미로 숙종에게 조총을 상납하여 사죄의 뜻을 표하도록 노골적으로 강요했다. 숙종은 청으로 병기가 유출되는 상황을 극도로 꺼리며 거부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57] 여기에 더해 寧古塔回歸說[58]이 사회적 담론으로 확대되고 조선의 서북지역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淸使 5명이 백두산의 지세를 확인하기 위해 파견된다는 先來狀啓가 이르렀다.[59] 조선으로서는 청인이 몽고에게 패배해 영고탑으로 가는 하나의 루트로서 백두산의 要路를 확

56) 울란부퉁[烏蘭布通] 전투는 1690년(강희 29) 4월, 북경에서 북으로 350㎞ 떨어져 있는 곳에서 청군과 준가르군이 처음으로 격돌한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갈단군이 대패하고 퇴각했으나, 청군의 尙書 阿爾尼 부대가 패배하고, 康熙帝의 숙부 佟國綱이 전사하는 등 황제의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다. 이후 강희제는 갈단군과의 遠征을 대비해 약 6년에 걸쳐 정예병과 火器兵 등을 증설하였고, 1696년(강희 35)~1697년(강희 36)에 총 3차례의 친정을 거쳐 갈단 세력을 평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오카다 히데히로, 2014『강희제의 편지』, 경인문화사; 피터 C. 퍼듀, 2005『중국의 서진』, 도서출판 길 참고.

57)『肅宗實錄』卷23, 肅宗 17年 4月 10日(乙丑).

58) 寧古塔回歸說은 청이 몽고에 의해 멸망할 경우 그들의 發祥地인 寧古塔으로 회귀할 때 적군에 의해 퇴로가 막혀 조선의 서북지역을 거쳐서 갈 것이라는 논리로, 조선사회에 주된 담론이 되었다(배우성, 1997「17·18세기 청에 대한 인식과 북방영토의식의 변화」『한국사연구』 99·100; 1998『조선 후기 국토관과 천화관의 변화』, 일지사).

59)『肅宗實錄』卷23, 肅宗 17年 11月 16日(丙寅).

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인식했다.[60] 비록 청사의 파견은 중단되었으나 도성 내의 士大夫들이 가족을 이끌고 도망갈 정도로 청으로부터의 장계는 조선 사회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다.[61]

불안한 청 정세가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 개성은 의주-평양을 거쳐 도성으로 들어오는 최후의 보루지역으로 주목받았다.[62] 三藩의 亂이 한창이던 상황에 등극한 숙종은 1676년(숙종 2) 개성에 大興山城을 구축하고 군량·무기를 확보하며, 都體察使府에 소속시키는 등 다양한 군사 정책을 시행하였다.[63] 개성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잠시 소강되기도 하였으나[64] 청과 몽고가 분쟁하던 1690년대 본격 재개되었다. 戶曹參判 李義徵은 개성유수가 개성부를 전적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군사권, 재정권, 인사권 등을 확보해주는 '松都大興山城措置節目'을 마련하였다.[65] 즉, 개성을 하나의 營門으로 삼아 개성유수에게 개성 주민들을 군사로 동원할 수 있는 지휘권을 부여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 것이었다.

하지만 이 방안은 개성 주민들에게 예상하지도 못한 갑작스런 통보였다. 다음은 개성 주민들의 혼란한 상황을 보고하는 개성유수 權瑎의 狀啓이다.

> 本府[開城府]에 軍門을 설치한 것은 三營에 비교할 것이 아니니, 대개 山城[大興山城]을 수호하고자 해서일 뿐입니다. 다만 300년 동안 한가롭게 지내온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군문에 구속되었으니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66]

---

60) 『肅宗實錄』 卷24, 肅宗 18年 1月 18日(戊辰).

61) 『肅宗實錄』 卷24, 肅宗 18年 1月 27日(丁丑).

62) 구열회, 2019 「숙종~영조시기 三南 등의 방어 체제 정비와 변화: 교통로에 위치한 요충지 방어의 확장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85, 98-99면.

63) 김종수, 2016 「조선의 왕권과 숙종초기 도체찰사부」 『군사』 98, 188-189면.

64) 大興山城에 대한 지원이 소강된 것은 庚申換局의 역모 장소로 지목된 점, 三藩의 亂이 마무리 되었던 점, 내부가 협소하여 국왕이 移御하기에 한계가 노정된 점 등을 들 수 있다(김우진, 2019 『숙종대 수도권 방어정책과 국왕의 대응』, 단국대학교 박사논문, 52-53면).

65) 『備邊司謄錄』 45冊, 肅宗 17年 8月 21日條; 『訓局謄錄(K2-3400)』 10冊, 辛未年 9月 8日.

66) 『承政院日記』 348冊, 肅宗 18年 5月 17日(丙寅) "開城留守權瑎所啓, 本府軍門之設, 非若三營之比, 蓋欲守護山城而已. 第其三百年優遊之民, 一朝拘束於軍門, 不無疑懼之心."

개성 주민들은 조선 초기부터 상업에 종사하였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조선초 위정자들은 국정운영에 비호의적이었던 개성인들을 고려 유민으로 인식하고 개성에 停擧令을 내리면서 중앙으로의 진출을 제한했다.[67] 다음으로 개성이 인구에 비해 토지가 좁은데다 토지가 비옥하지 않아서 곡식의 생산 규모가 매우 적었다. 마지막으로 개성은 중국의 물산이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업적으로 매우 유리했다. 이런 이유들로 대부분의 개성 주민들은 豐凶에 관계없이 조정의 공식적인 인가 아래 상업을 본업으로 삼았다.[68] 그 결과 개성은 전국 제일의 상업도시로 부상하게 되었고, 개성의 남성들은 겨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을 타지에서 머물며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전국을 다녔다.[69] 그런데 개성에 갑자기 군문이 설치되고, 거주민들은 하루아침에 군문에 소속된 것이었다.[70]

물론 개성 주민에 대한 군사적 부담은 이전에도 있었다. 선조대에 유수 許潛과 申磼은 개성의 行商들까지 전부 훈련에 종사하게 하려다가 원망을 산 적이 있었다.[71] 개성 주민에게만 부과되는 束伍 收米 역시 예비군 성격의 束伍軍에 편성되어 조련할 수 없는 특수한 지역적 사정을 고려해 형성된 세금이었다.[72] 그런데 이번에는 개성부 백성들을 아예 군문에 포함시킨 것이었다. 갑작스런 전개에 개성부 주민들은 조정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이들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개성유수 권한은 개성에 부임한 이후 부로들을 소집해 여러 방면으로

67) 양정필, 2017「조선시대 지역에 대한 차별과 개성인의 정체성」『중앙사론』46, 52면.

68) 강만길, 1973「개성상인과 인삼재배」『조선 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학교출판부, 103-106면; 박평식, 2004「조선전기 개성상인의 상업활동」『조선시대사학보』30, 91-94면; 한희숙, 2011「조선 초기 개성의 위상과 기능」『역사와현실』79, 121면; 양정필, 2015「개성상인과 정치권력」『역사와실학』58, 102면.

69) 고동환, 2009「조선 후기 開城의 도시구조와 상업」『지방사와 지방문화』12, 332면, 346-437면.

70)『備邊司謄錄』46冊, 肅宗 18年 5月 18日;『承政院日記』348冊, 肅宗 18年 5月 17日(丙寅).

71)『宣祖實錄』卷204, 宣祖 39年 10月 6日(丙午).

72) 조선시대 束伍軍 관련 논문으로는 車文燮, 1973「束伍軍硏究」『朝鮮時代軍制硏究』, 단대출판부; 張弼基, 1990「17세기 전반기 束伍軍의 성격과 위상」『사학연구』42; 金友哲, 2001『朝鮮後期 地方軍制史』, 경인문화사 등이 있다.

曉諭하고, 한동안 軍務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정시키고자 하였다.[73] 하지만 그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숙종은 서둘러 조정에 대한 개성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했다. 그래서 개성유수 권한의 장계를 확인한 그해 가을에 후릉으로의 행행을 결정하였다. 영의정 權大運이 원거리 일정과 흉년을 들어 반대했으나, '언제 풍년을 기다렸다가 拜陵하느냐'는 숙종의 단호한 거절에 아무도 감히 언급하지 못했다. 하지만 숙종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水災로 인해 전국의 사망자가 600명을 넘어서고 심각한 흉년이 든 현실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74]

그러던 이듬해인 1693년(숙종 19) 3월, 李侃·閔就道 등 청에 파견되었던 사신들을 통해 '오이라트[阿魯德]가 흉년을 당한 것을 핑계로 兵馬를 거느리고 나왔기 때문에 장차 變亂에 대응하기 위해 (청에서) 병기를 수선하는 일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75] 조만간 변경에서 청과 몽골 준가르 부족 갈단의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타진되었다. 즉, 서북 지역의 방어를 강화하고 요해처이자 보장처인 개성의 민심을 다잡을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숙종은 지난해에 포기해야 했던 개성으로의 행차를 단행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숙종이 개성을 포함한 보장처에 행차했다는 것이다.[76] 구체적으로, 남한산성은 청과 러시아의 전쟁 소식이 유입되자 동쪽의 蜂巖城을 쌓고 이듬해인 1688년(숙종 14)에 행차하여 병자호란 때 공을 세운 유공자들을 포상하였다.[77] 강화도는 숙종이 직접 행차한 적은 없으나, 청과 몽골 갈단과의 전란을 계기로 외성과 文殊山城을 완축한 이듬해인 1695년(숙종 21)에 자신의 御眞을 직접 봉안하여 지역에 대한 위상을 높여주었다.[78] 그리고

73) 『備邊司謄錄』 46冊, 肅宗 18年 5月 18日.

74) 『肅宗實錄』 卷24, 肅宗 18年 8月 3日(庚辰).

75) 『肅宗實錄』 卷25, 肅宗 19年 3月 26日(庚午).

76) 숙종대 대표적인 보장처로는 남한산성, 강화도, 개성, 북한산성을 들 수 있는데, 1712년(숙종 38)의 북한산성을 제외하고 대체로 이 시기를 전후로 행차하였다.

77) 김문식, 2012 「조선 후기 국왕의 南漢山城 행차」 『조선시대사학보』 60, 113-115면.

78) 김우진, 2019 「숙종의 강화도 축성과 御眞 奉安」 『조선시대사학보』 90, 215-226면.

개성 행차는 1693년에 시행되었다.

전술한 대로, 숙종이 추진한 설과와 유시는 개성 주민들에 대한 慰撫에 초점을 맞춰졌다. 그는 시재의 혜택을 오직 개성 주민들에 한정하였다. 사실 개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에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과거가 있을 때마다 개성부 주민들이 응시하는데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개성부 주민들을 위하여 별도로 즐겁게 하고 위로하는 행사를 둘 필요가 없다고 반대하였다.[79] 그러나 숙종은 이에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국왕이 시재를 한눈에 총괄할 수 있도록 매우 신중하게 장소를 선정하였다. 또한 그는 많은 무인들이 시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계속 낮추었고, 무과 시재를 직접 주관하기 위해서 일정도 조정했다. 심지어 예정된 숙소인 太平館[80]에서 三節軒으로 移定하였는데, 이는 유수가 머무는 곳인 삼절헌에 비해 태평관이 성 밖에 있어서 불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81]

숙종이 남문루에 개성의 부로들을 모아 유시한 것도 동일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숙종이 능행하는 도중에 주민들을 불러 모은 것은 개성이 처음은 아니었다. 당해 2월 穆陵을 전알하고 나서 帳殿으로 나아가 경기도 부로들에게 手札로 유시한 일이 있었다.[82] 하지만 개성의 경우는 주민들의 요청과 불만 사항을 직접 들어주고, 환궁한 이후에도 그들의 건의 내용을 기억해 대신들에게 재차 稟議하도록 요구하며 나아가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한편 1694년(숙종 20) 숙종이 개성에 있는 崇節祠에 賜額을 하사한 일도 주목할 만하다.[83] 숭절사는 개성부에 있는 祠宇로, 1666년(현종 7) 지방 유림들의 公議를 계기로 세워졌다. 이곳에는 東萊府使 宋象賢・副元帥 劉克良・淮陽府使 金鍊光인 三賢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었다. 송상현은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을 지키

79) 『肅宗實錄』 卷25, 肅宗 19年 8月 14日(乙酉).

80) 太平館은 고려시대의 征東行省이 태평관으로 변경된 것으로, 開城府 本司 서편에 위치해 있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 卷4, 「開城府 上」).

81) 『拜陵謄錄(奎12868)』 卷3, 「癸酉八月初三日・試所及宿所定奪」.

82) 『肅宗實錄』 卷25, 肅宗 19年 2月 20日(甲午).

83) 『松都誌』 卷1, 「國朝紀事・肅宗」.

다 순절했으며, 유극량은 임진강 나루터에서 왜군과 싸우다가 전사하였고, 김연광은 회양성 문 앞에서 정좌한 채 순국하였다. 이들은 모두 개성부 출신으로 동일한 시기에 활약했고, 동일한 행적을 남겼으며, 동일하게 순국한 공로가 있었기에 동일한 사우에 並享되었다.

개성에서 환궁한 지 3개월이 지난 1693년(숙종 19) 11월, 숙종은 숭절사에 사액을 내리도록 명하였다. 발단은 개성 유생인 張震網[84] 등의 상소에서 비롯되었다. 개성 유생들은 두 가지를 숙종에게 요청하였는데, 하나는 숭절사에 사액을 내려 공식적으로 삼현에 대해 숭상하고 보답하는 도리를 표명하길 바랐고, 다른 하나는 목청전과 경덕궁을 重建하여 先王의 옛 자취를 회복하도록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비변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累朝에서 은전을 시행하지 않았던 것은 요청을 들어주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85] 그런데 숙종은 후자에 대해서는 궁전의 중건이 중대한 일에 관계되므로 가볍게 논할 수 없다고 비답을 내린 반면,[86] 전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액하도록 傳敎한 후 곧장 藝文館에서 敎書와 額號를 짓도록 하고, 禮曹正郎 安建之를 차출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87] 그 결과 본 사우는 사액을 받은 서원으로 승격되어 숭절사 혹은 崇節書院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후 1720년에는 영조가, 1783년에는 정조가 각각 선왕의 전례를 따라 숭절사에 치제하였다.

이상과 같은 숙종의 조치들은 개성 주민들에게 상당히 깊은 인상을 남겼다. 개성은 古都라고 일컬어지지만 중종대 이후 왕실에서 잊혀져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태조의 발상지이자 태종대까지 집무실로 사용되었던 경덕궁과 목청전이 황폐화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상황이 그 반증이라 할 수 있겠다. 더욱이 당시 개성부 주민들은 북방에서 전해오는 급박한 소문들에 불안해하면서도 하루

84) 『肅宗實錄』에서는 張震網으로, 『書院謄錄(奎12905)』에는 張進綱으로 나온다.

85) 『書院謄錄(奎12905)』「肅宗 19年(1693) 11月 29日」.

86) 『肅宗實錄』 卷25, 肅宗 19年 10月 8日(戊寅).

87) 『承政院日記』 361冊, 肅宗 20年 8月 26日(辛酉); 『泉谷集』 卷2, 「附錄 · 肅廟甲戌賜額崇節祠文【遣禮郎安建之諭祭】」; 『崇節祠三忠錄』 卷3, 「肅廟甲戌賜額崇節祠文【遣禮郎安建之諭祭】」.

아침에 군문에 합류된 상황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한 개성에 숙종이 150여 년 만에 찾아와 개성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재를 행하고 면담하며 위무한 것이다. 멀리에서나마 국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육성을 직접 듣는 일은 개성부 주민들에게 결코 흔치 않은 경험이었다. 그리고 국왕이 자신들의 노고와 고민들을 들어주며 적극 소통하려 하였고, 시간이 걸리긴 하였으나 속오 수미가 타파되고 인근 지역이 획급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숙종이 개성부 출신의 순절자들에 대해 그 공로를 인정해 주고 사액을 내려주었다. 개성 주민들은 국왕이 숭절사에 사액을 내려 개성 출신 무장들에 대한 충절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개성부 주민들은 국왕이 행차에서 보인 일련의 소통 행위들을 통해 조정에 대해 갖고 있던 의구심을 잠재울 수 있었고, 동시에 숙종은 앞으로 도래할 수 있는 북방의 위기 속에 주민들의 국왕을 향한 신뢰감과 충성심을 고양시킬 수 있었다.[88]

5. 결론

왕조 국가에서 국왕이 궁궐과 도성을 벗어나 수많은 신료와 무사들을 이끌고 공식적으로 행차하는 것은 큰 행사였다. 국왕 그 자체가 권력이며 만인의 상징이기 때문이다.[89] 자연히 국왕의 행선 지역, 시기, 목적, 행선 지역에서의 행위는

88) 숙종의 개성행차에 대해 개성인들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확인해주는 사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숙종 말년에 실시된 개성부의 독진화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그 평가가 갈리고 있다(金友哲, 2009 앞의 논문, 296-297면; 노영구, 2006「조선 후기 開城府 일대 關防體制의 정비와 財政의 추이」『한국문화』 38, 464면). 그러나 1728년(영조 4) 李麟佐의 난이 발발했을 때 개성부는 누구보다 서둘러 한양으로 군대를 파견하였으며, 개성의 牙兵들은 자발적으로 소집하고 스스로 점고를 받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松都誌』 卷1,「國朝紀事・英祖」;『英祖實錄』 卷16, 英祖 4年 3月 21日(辛未); 卷17, 英祖 4年 4月 24日(甲辰)]. 다시 말해, 숙종이 개성을 방문한 이래 이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불만을 해결하도록 노력한 결과, 개성 주민들이 국왕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시키게 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다.

매우 정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숙종은 누구보다도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한 인물이었다.[90] 그는 선왕들의 능침을 拜謁하기 위해 陵幸을 시행하면서 선왕과 자신과의 혈연적 정통성을 확인하였고, 동시에 행차하는 지역에 보장지역이 포함될 경우 방문을 잊지 않았다. 개성 역시 그 중 하나였다.

청과 북방세력(러시아·몽골)과의 전쟁은 조선 사회에 큰 불안을 야기했다. 패전한 청이 퇴각하다가 조선 북방 지역을 침략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가장 고조되었기 때문이었다. 숙종은 청 정세에 대한 우환을 대비하고자 조선 북부 지역과 보장처에 대한 군사적 보강에 힘을 기울였다. 그 가운데 개성은 의주에서 평양을 거쳐 수도로 들어오는 주요한 길목에 위치해 있으며 최후의 보루였다. 숙종은 일찍부터 개성의 지정학적 위치를 인정하여 이곳에 대흥산성을 구축하고 군량과 무기를 확보하였다. 나아가 청과 몽골의 전쟁이 본격화된다는 소식에 개성을 하나의 군문으로 삼고 개성 주민들을 군사로 소속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 정책은 상업에 종사하며 전국을 다녀야 하는 개성 주민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숙종은 시시각각 변모하는 청 정세에 주목하며 동시에 개성 주민들이 조정에 대해 갖고 있는 의구심을 풀어줘야 했다.

숙종은 개성의 불만스런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는 출발 전부터 개성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무과를 시행하면서, 보다 넓은 장소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또한 개성부로들을 모아 세금 감면을 선포하고 불만을 청취하는 등 직접 통치 행위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개성 출신의 유공자들을 모신 숭절사에 사액을 내려 조정에서 그들의 노고와 충심을 잊지 않았음을 공식화하였다. 이외에도 태조와 관련된 유적지에 碑文을 남기고 시를 하사함으로써 개성의 위상을 높여주었다.

이러한 숙종의 적극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소통 행위는 개성부 주민들이 갖고 있던 조정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잠재움으로써 국왕을 향한 충성심을 고양

89) 이왕무, 2016『조선 후기 국왕의 능행 연구』, 민속원, 392면.

90) 조선 후기 국왕의 陵幸을 살펴보면, 肅宗 이전에는 10회 미만이었던 것이 肅宗의 47년 재위 기간 동안 48회로 비약적으로 급등하였으며, 이후 영조의 52년 재위 기간에는 77회, 정조의 24년 재위 기간에는 63회의 능행을 시행하였다(위의 책, 140-141면).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궁극적으로 숙종은 개성 행차를 통해 태조와의 혈연적 관계를 부각시켜서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대내적 목적과 함께 혹시 모를 북방의 위기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방어 지역을 확보할 수 있는 대외적 목적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겠다.

주제어 : 肅宗, 開城, 갈단[喝爾丹], 행차, 科擧, 諭示

투고일(2019. 10. 31), 심사시작일(2019. 11. 12), 심사완료일(2019. 11. 27)

〈Abstract〉

A Study on King Sukjong's Royal Visit to Gaeseong in 1693 and Its Meaning

Kim Woo Jin *

This article focuses on King Sukjong's formal visit to Gaeseong 開城 in 1693 in which he made a royal statement(yusi 諭示) and honor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with his presence. Earlier in the early 1690s, the king, to prepare for the possible consequences of the Dzungar-Qing wars, ordered to fortify Gaeseong, one of the most prosperous commercial hubs in Joseon, into a garrison city, imposing military duties on the residents. The decision had invited widespread complaints from the Gaeseong residents, many of whom were merchants. King Sukjong's royal visit to the city was intended to address the residents' grievances. In Gaeseong, he, attentively listening to the various voices of the inhabitants, granted not only a tax reduction but also preferential treatment for the Gaeseong residents to pass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as many as possible. King's positive actions resulted in increased trust and loyalty of the Gaeseong inhabitants, securing the last bastion for the defense of the capital.

Key Words : King Sukjong, Gaeseong(Kaeseong), the Dzungar, royal visit, civil service examination, royal statement (*yusi* 諭示)

* PhD, Department of History, DanKook University.